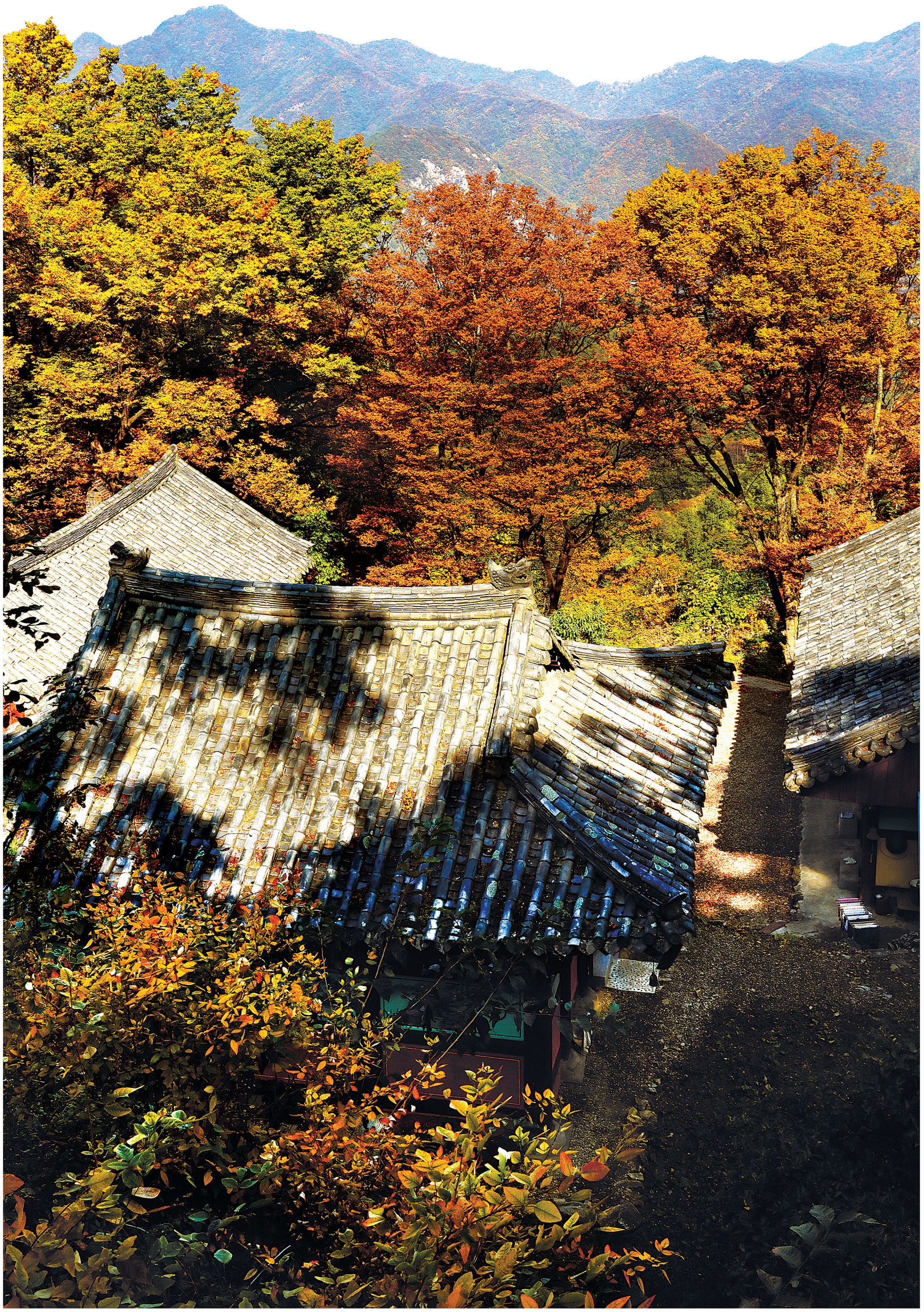
깊어가는 것들과 마주하는 곳



바람도 머문 곳, 암자

⑧ 충북 제천시 보덕암(寶德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수미산에도 가을이 있을까. 단풍과 낙엽, 높아진 하늘, 깊어진 바람이 있을까. 있다고 해도 이 사바의 가을만 할까. 이 고단하고 지난한 삶에서 한 번 쯤 하늘을 보게 되는 시간, 번개처럼 지나가는 이 짧은 계절만 할까. 수미산 끄트머리, 사바는 지금 가을이라는 시절에 물들어간다. 문 밖의 모든 것들이 깊어간다. 하늘이 깊어가고 숲이 깊어가고 바람도 깊어간다. 이제 우리가 깊어가야 할 시간이다. 이 짧은 시절에 우리는 하늘보다, 숲보다, 바람보다 깊어져야 한다. 말마다 글마다 걸음마다, 무엇을 바라보든 무엇보다 우리의 두 눈이 더 깊어야 한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이 더 무거워야 한다. 이 가벼운 삶에서 이 짧은 시절은 얼마나 무거운 시간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한 시절만이라도 우리가 단풍보다는 붉어야 하지 않을까. 저 푸른 하늘보다는 깊어야 하지 않을까. 저 헐거움을 누리고 있는 숲보다는 더 많이 뒤돌아봐야하지 않을까. 나누는 말마다, 적고 싶은 글마다, 걷고 있는 걸음마다 '나' 있는 곳에 한 번 쯤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 저 깊어가는 것들과 함께 더욱 깊어가야 하지 않을까. 깊어가는 것들과 조용히 마주할 수 있는 곳, 보덕암으로 간다. 수미산에도 없는 가을과 마주하기 위해 월악산으로 간다.

산은 산, 물은 물

울긋불긋한 산봉우리들이 여름내 지었던 숲을 허물고, 산봉우리에 둘러싸인 충주호가 가을 햇살에 빛나고 있다. 물은 늘 빈 곳을 채우고, 산은 늘 계절을 품고 있다. 산은 산, 물은 물이다. 선사의 안목을 떠올리며 월악산(해발 1,095m)을 오른다.

보덕암은 월악산의 주봉인 영봉으로 가는 길목(해발 500m)에 있다. 영봉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처럼 서있다. 영봉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보덕암을 볼 수밖에 없지만 들르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정표에 불과하다. 스쳐간다면 영봉으로 가는 이정표일 뿐이지만 잠깐이라도 발길을 멈춘다면 깊은 가을로 가는 이정표다.

한국의 5대 악산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월악산은 달이 뜨면 달이 영봉에 걸린다고 해서 '월악'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삼국시대에는 월형산이라 불렀다. 후백제의 견훤이 이곳에 궁을 지으려다 무산되어 와락산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봄에는 다양한 봄꽃과 함께하는 산행이 좋고, 여름에는 울창한 수림을 즐기는 계곡산행이 좋다. 가을에는 충주호와 연계한 단풍 및 호반산행이 좋고, 겨울에는 설경산행이 매력이다. 동서로 이어진 8km의 송계계곡의 월광폭포와 자연대 등의 송계팔경과 16km에 달하는 용하구곡의 폭포 · 천연수림 등이 명소로 꼽힌다. 그 밖에 덕주사, 신륵사, 중원 미륵사지(사적 제317호) 등의 도량과 사자빈신사지석탑(보물 제94호), 중원 미륵리 삼층석탑(충북유형문화재 제33호), 중원 미륵리 석등(충북유형문화재 제19호), 제천 신륵사 삼층석탑(보물 제1296호) 등의 문화재를 지니고 있다.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노소도게로 가는 길 〈下〉

B4 책세상
석지현 스님의 〈임제록〉

B5 문화
박찬경 개인전 '모임'

B6 학술
혜유 스님, 서강대 종교연구소서 대행선사 주제발표